

호제가 썩는 냄새

최근 일본에서는 값싼 섬유제품이 넘쳐흐르면서 내의나 타월을 구입할 때에는 썩는 냄새가 나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직준비공정에서 풀은 먹이는 것은 직물 경사의 강력을 보강해주며, 제직 중 옆의 실과 엉키지 않도록 경사의 잔털을 눌러 제직 효율도 높여주고 있는데, 염색가공공정에서는 방해가 되므로 탈호(脫糊)공정에서 경사의 풀을 뽑아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생산에 쫓기거나, 풀 빼는 약제가 잘 작용하지 않아서 그런지, 풀이 잘빠지지 않은 제품이 곧잘 있는 것 같다. 직물에 남아 있는 풀은 장마철이나 여름철에 적당한 온도, 습도와 통풍이 안되면 풀이 썩게 된다. 풀이 썩게 되면 내의나 타월 등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곰팡이가 피어 불쾌감을 주기도 한다. 곰팡이까지 피면 섬유도 썩어 약해진다.

이러한 냄새는 빨래를 방안에서 말려서 “노네날”의 냄새가 나는 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면제품에 냄새가 나는 풀이 남아 있을 때 이들 풀이 썩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틀림없다. 탈호 공정은 정련·표백이나 염색·가공의 준비공정으로서 맨 먼저 풀을 뽑아야 하는데, 약품이 부족하여 그랬는지 또는 풀이 부족하여 충분히 행구지 않았거나 적절한 온도와 시간을 지키지 않았거나 이 공정을 소홀히 하기 때문인지 탈호가 충분치 못한 것이 적지 않다.

탈호를 충분히 하지 않아도 정련이나 염색할 때 직물에 남아 있던 풀이 다 빠질 것으로 기대하는 견해도 있는 것 같은데 잘못된 추측이다. 오히려 남아 있던 풀은 정련 효과를 떨어뜨리고, 염색에서는 불균일하게 염색되거나 염색 견뢰도를 나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고령취(高齡臭)라고 하는 고령자 특유의 냄새는 “노네날”이라는 불포화 알

데히드(不飽和 aldehyde)가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풀이 썩는 냄새는 이 “노네날”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것 같다. 악취를 없앤다고 소취(消臭)가공이나 소취제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부질없는 일이고, 악취는 그 근원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역성(逆性)비누는 약용 비누의 일종으로서, 이 비눗물은 거품이 많이 일어나고 표면활성(表面活性)이 있고 강력한 살균, 용혈(溶血), 단백질침전작용(蛋白質沈澱作用)이 있어 의료 소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혹시 이 비누로 세탁하면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있고, 풀 빼는 효소(酵素)를 사용해 보라는 의견도 있지만, 중요한 점은 풀이 충분히 빠지도록 잘 세탁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안일 것이다.